

상해 모간산루 현대예술 회화적인 작품들

모간산루는 1930년에 지어진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
버려진 공간을 예술가들이 자리하면서
예술단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.

모간산루의 약자 M+지번 50='M50' 이라고 하기도 한다.

이곳도 역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수 있었는데무슨 역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~

[출처][상하이 여행기_Ep05_모간산루+중산공원](#)|[작성자달토끼](#)

상하이에 있는
예술단지 중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.

베이징에 있는 다산쯔798과 맞서는..
다녀왔는데 언제 포스팅할지는..

앞서 소개한 티엔즈팡이 상업화 되었다면
이 곳은 상업화가 덜 된 예술단지랍니다.
그래서 사람에 치이고 다닐일은 없었어요.

레드타운(红方)도 상업화가 덜 된 곳이지만
M50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

레드타운이 조형물, 조각품 중심이라면
M50은 회화 중심의 느낌(더불어 시각적 예술)
(물론 M50에도 설치미술,조각품 등이 있습니다..)



상해기차역에서 내려서 굳이 굳이 택시를 타고 갔던.
사실은 중탄루역에서 걸어서 가면 금방인데
갈 때는 몰랐다..올때는 걸어서 갔다능..바보~~
중탄루에서 걸어가면 벽에 그래피티도 실컷 구경할 수 있고, 돈도 아낄 수 있다!

